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1호

발행일 : 2018 .1 .7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장17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달의 간증>

-이민애 청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새내기 청년 이민애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간섭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간증 해 볼까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 맞을까 실업계 고
등학교에 진학 하는 것이 맞을까 많은 고민 끝에 정보고
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좋은 곳에 취업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며 1, 2
학년을 보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고 제가 많이 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전 밝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취업을 하게 된 친구들을 보며 나는 아무데도 못가면 어
떡하지 하는 조바심이 있었나봅니다. 그러한 저를 보신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누구의 말도 저의 불
안함을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언니 오빠들의 성전 밝기를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을 하며 시작했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운적도 있었고 성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할 때도 있었지만,
반복된 시간 속에 기도를 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질까 두려워서 망설였던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결
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
님은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동제약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기회라
고 해서 지원 하려고 했지만 제약회사의 특성상 2교대일 수도 있고,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와 함께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고 집을 떠나
야 한다는 문제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살아
왔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성전이였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라 할지라도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지원을 하기 위해 작년에 회사에 취업한 언니와 연락이 닿아서 궁금한 것을 물으니 2교대도 아니고 주일 근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다! 라는 강한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과 담대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면접을 보기위해 안성에 갈 때에도 이상할 만큼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없었고 불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도 제가 준비한 말을 다 할 수 있었고 후회 없는 면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기도 하지만 즐겁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의 감사와 기쁨은 최고였고, 비록 작은 것 일지라도 나도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때론 친구들은 이러한 저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고.. 너무 유별나서 자기는 못나오겠다고.. ㅠㅠ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금요기도회 반주를 하기 위해 안성에서 부지런히 와서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고 때론 집에 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주일 학교 교사를 마치면 또 바쁘게 가야 두 번을 갈아타고 3시간 걸리는 거리이기 에 몸은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늘 마음은 기대가 있고 설렘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민애”라는 이름답게 많은 사랑을 사랑하고 품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늘 받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저를 보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지기를 기도 해 봅니다.

벌써 두 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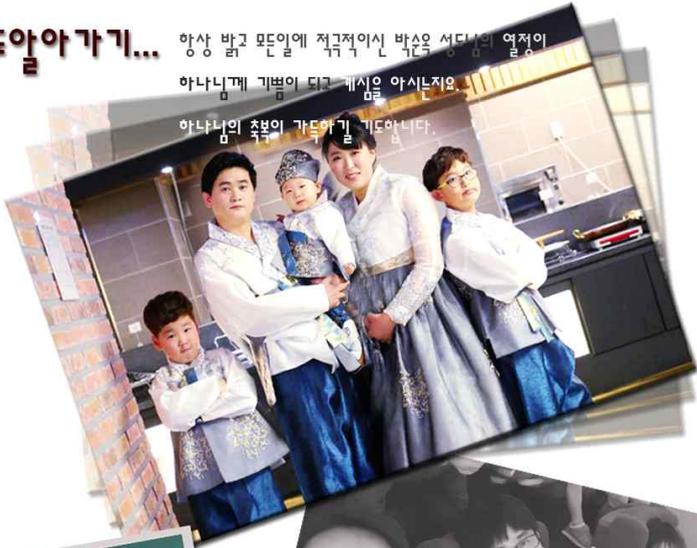
비록 남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고 웃겠지만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였기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도아아가기...

항상 밝고 포근일에 적극적이신 박순옥 성도님의 열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제심을 야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알아보기

-박순옥 성도-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박준희, 재민, 우진 삼형제 엄마이며 당진순복을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안되지만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중인 박순옥 성도입니다.

2.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본인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나 감사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며 기도하게 된거요.

3. 남편과 세자녀 사랑해 주세요.

남편은 음~~ 그냥 평범?! 가정적이죠 ㅋㅋ 밖에서 일 하는 것도 힘든데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요~^^

준희는 큰 아이라 든든해요 아직 어린애지만 그래도 항상 준희를 많이 의지하게 되요~ 재민이는 막동이로 자라서 애교도 많고 이쁨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진이가 태어나서 그 이쁨을 빼앗겨 버렸지요. 그래서 우진이를 시기하고 질투도 할때도 있지만 다행히 동생을 잘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우진이는 그냥 막동이라 애교쟁이예요. 이쁨 받으려고 많은 애교를 부린답니다.

4. 2018년도 주님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좀 더 힘쓰고 주님께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5. 성도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었나요? 어린시절이 궁금해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질문처럼 꽃피는 산골이었어요.ㅋㅋㅋ 전라남도 백운산 꼭대기 논실마을에 일곱가구만 살았어요~ 제가 장녀인데 동네에서도 켈 말이여서 맨날 “나를 따르라~” 라는 식으로 놀았죠~ 집 뒤에 산이 있었고 집 앞 마당엔 계곡이 있어서 항상 산이랑 계곡이 놀이터 였어요. 하루에 버스가 아침 점심 저녁 세번밖에 없던 마을이었어요~ 그런 제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천안을 가게 되었는데 천안 터미널에 큰 건물들을 보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엄청 신기 했었지요.ㅋㅋ 산골 아가씨가 도시에 오니 얼마나 놀랐게요~

6. 요리 잘 하세요? 무슨 음식 잘하세요?

요리는 못하고 집에서 먹는 일반 음식은 조금 흥내만 낼 줄 알아요~

무슨 음식이라고 딱 짚어 말하기 어렵네요~ 뭐든 흥내만 낼 뿐이랍니다.

7. 자신의 성격 중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활달한거?! ㅋㅋ

단점은 욕하는거?! 많이 욕해요 참아야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8. **우리교회 성도님들 중 닳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요? 그 이유도 궁금해요.**

장명희 집사님이요~ 항상 부지런하시고 주의 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발 벗고 나서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닳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교회 와서 절 반겨주시고 웃으시며 말 걸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옆집 사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교회에서 집사님을 알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답니다.

9. **성도님의 달란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전 제 달란트가 없어 보이는데... 있을까요?? 여건이 된다면 맡겨주신 일 열심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아직 우진이 껌딱지가 있어서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10. **성도님께서 수년동안 사셨던 일본에서의 생활이 궁금해요.**

친정 부모님께서 이혼 후 엄마가 일본에 사시는 이모한테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빚 갚아 나가시기 어려워서 일본에서 4시간씩 자면서 오전엔 한인 비디오방 오후엔 고깃집 알바 저녁엔 술집 웨이터 새벽에 다시 한인 비디오방으로 전전하며 네다섯가지 일을 3년동안 했어요. 모아 놓는 것 하나 없이 일만하다가... 절반 정도 갚고 한국에 왔어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라.....

11.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러브스토리 궁금해요.**

천안 삼성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남편의 성실한 부분을 보고 제가 대쉬를 했죠. 처음엔 제가 대쉬를 했는데 남편이 안 넘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대쉬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라구요.ㅋㅋ

12. **살면서 감동적인 경험을 해 본적이 있으세요? 그 이야기 해 주세요.**

준희, 재민이, 우진이 태어날 적에 많이 감동이었죠. 열달동안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아보니 감동이 오더라구요. 새 생명의 탄생!!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일을 한 거 같아요.

13.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세 아이들 건강, 남편 직장에서의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 **나의 가정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란색이요. 바다색처럼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가정이 되고 싶고 그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요. 비유가 맞는 걸까요? ㅋ

15. 누구나 광야의 때는 있기 마련입니다. 내 자녀가 그때에 처해있다면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뭐라고 말을 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구절을 읽어 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16.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느꼈던 가장 최근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우진이 낳았을 때요. 전치태반이었어요. 태반이 자궁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연 분만을 하면 출혈이 심해서 아이가 위험하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출혈이 생기면 무조건 아이가 작더라도 출산을 하러 가야했어요. 전치태반 확진을 받고 중보기도 요청도 했고 저도 수시로 기도하면서 임신주수 채워주시길, 건강한 아이 출산하길 위해 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건강한 우진이를 낳게 해 주셨고 열달 채워서 낳았어요. 그리고 수술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간섭 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17. 성도님께서 만약에 무인도에 가신다면 무엇을 들고 가시겠어요?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물, 라이터나 성냥, 성경책이요. 물은 탈수증 걸려 죽기 싫어서요.

라이터나 성냥은 불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던 동물을 잡던 구워먹고 삶아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천국 가려구요.

18. 성도님께 당진순복음교회란?

하나님을 알게 해 준 교회이고 저를 세상에서 구원해 준 교회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교회입니다.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저에게 성도님들과 교제로 많은 섬김을 받고 많은 섬김을 할 수 있게 해 준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있게 해 준 교회입니다.

희주씨 보세요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당신을 부른 적이 언제였는지~~
족히 20년은 된 것 같네요.

우리가 만나고 살아온게 21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온지는 14년이 되었네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당신을 보며 늘 고맙고 감사했지만 표현하기 민망하여 한번도 말로 하지 못했어요. 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며 내게 시시 때때로 표현하지 않는 당신에게 짜증내며 화 낸 것 미안해요... 조금 서툴지만 지금 해 봅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기뻐서 없는 나에게 다가와 기다리 아저씨처럼 항상 힘이 되어 주는 당신이 있어서 난 참 행복합니다. 며칠 전 나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내게 고맙다 하셨죠~~ 나 또한 당신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 알찬 신앙의 열정을 쏟을 수 있었음에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요. 어쩌면 평생 말로는 할수 없는 이 말들을 소중한 라이프지를 통하여 전달 할 수 있음에 문서위원회에 고맙고 하나님께도 감사 드려요.

교회 돌보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며 주의 일꾼으로, 때로는 사역자로 서 계신 당신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세 아이들 키우며 때로는 다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추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 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향하여 참 많이 참아주고 인내 해 주었다는 것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요~



나도 이제 나보다 당신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아내가 될게요.

최근 들어 회사 문제로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새삼스럽게 원치 않은 주말 부부를 하게 되어 홀로 기숙사를 향하여 발길 옮기는 당신의 뒷모습이 쓸쓸하고 안돼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아픈 마음을 애써 위로해 보지만 그래도 당신 없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니 더욱 빈자리가 느껴 지내요. 우리가 비록 몸은 잠시 잠깐씩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 아이들에게 믿음에 유산을 풍성히 물려 줄 수 있는 영적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믿음과 발걸음에 흔들림 없이 보조를 맞추어 같이 걸어주는 당신 정말 든직하고 멋져요! 이제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언제 고백할지 모르는 이 말!! 당신에게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요~~

늦은 밤 당신을 보고 싶어하며 사랑하는 아내가~~



2017년 교회학교 졸업예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11장 6절)





웃으십시오!

어느덧 아쉬운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시간의 흐름을 거역 할 수 없듯이 항상 부모 품에 안기어 재롱둥이로 남아주길 원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장성해 가는 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키가 훌쩍 자라나고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잘 자라준 우리교회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졸업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유치부에서 초, 중, 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자녀들이 감사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졸업생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배출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들이 별 탈 없이 잘 자라나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보다 잠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은 당진순복음교회에 보석들이며 자랑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전을 보이시며 목적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축복합니다.

졸업생 편지

학생회 가경연입니다. 부족한 저를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8살 때 처음으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 오게 된 저는 어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어려움에도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이 많던 제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20살을 앞둔 지금까지 뚝뚝하게 잘 자라 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뒤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지난 6년간의 선생님들의 노력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대학을 앞두고 성전 밭기를 시작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대학입시의 결과를 보며 낙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의 인생길을 모두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학입시를 계기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부턴 처음으로 구역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었던 언니 오빠들 덕분에 구역장을 할 수 있었으며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준 구역식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주시던 사모님과 매주 2부 순서가 끝난 뒤에 주방을 지키시며 부족함 없는 음식으로 학생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구옥순 선생님이, 또 뒤에서 무한 격려하시며 기도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매주 몸 아끼지 않으시고 운동장을 함께 뛰어 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저희 학생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졸업생 모두가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근하고 동지 같았던 학생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니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임보다는 그동안 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아쉬울 뿐입니다. 언니, 오빠들을 하나, 둘 떠나 보내면서 저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던 고등학생의 시절을 마무리하고 더 넓은 사회에 나아가 청년이 되려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제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감사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제 저희 학생회에는 없지만 여전히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당당하면서도 푸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 해 내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도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을 발판삼아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탄 축하제

2017.12.2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 19:38)

성탄 축하제

2017.12.2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눅 19:38)

성경 숨은그림찾기



* 축복의 통로 - essay.172 -



*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노망하다!

유머

거짓말(마가복음 17장)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될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시작되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으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7장 읽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거의 모든 성도가 손을 들었고 목사님은 웃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자 이제 거짓말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글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즐기다 보니~



유명 요리사들도 전국 맛집을 찾아 다녔고
게임 개발자도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웠고
유명 작가도 책벌레였던 독자였고
유명 강사도 누군가의 강의를 찾아다녔고
화가들도 영화관에 살았던 관객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 일을 먼저 즐겼습니다.

즐기다 보니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릴레이

송정숙 집사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믿는 자 위에, 특히 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릴레이: 정정희 권사님

<성경 인물 소개>

야곱(Jacob)

뜻 : 발 뒤축을 잡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동생이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상당히 경쟁적이며 투쟁적인 성품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창세기를 읽을 때 그는 독자로 하여금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그의 비정함과 교활함이 독자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형제간의 의리를 저버린 부도덕성도 무척 못마땅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광야에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져 돌아온 형의 곤경을 이용하여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실, 형으로 가장하여 눈 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건은 계명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께선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창28:13-14)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인간행위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하나님의 아들 명분(장자)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이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



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를 자니라](갈4:6-7)

야곱의 위대한 점은 장자의 기업을 얻기 위한 인간적 수단과 재물을 얻기위한 20년간의 인간적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이김)이라는 새 이름을 얻기 위하여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룬 거룩한 체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곱의 허리에

서 온 국민과 왕들이 나오리라](창35:11)는 예언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 새 국민이 나오리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은 고난 신학의 실상을 보여준 구원사의 주역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찐빵장수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

찐빵을 찌는 찜통의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뒤편으로 웬 아이 둘이 찐빵을 쌓아 놓은 진열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 애가 누나인 듯하고 작은 애가 남동생 인 듯한데 무슨 이유로 찐빵을 쳐다보고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 자주 그 애들이 가게 앞을 서성이다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동네 어귀에서 찐빵이며 어묵, 떡볶이, 만두 등을 파는 작은 분식점입니다. 그날도 주방에서 음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 남매가 찐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알아봐야겠다 싶어 얼른 손을 씻고 주방을 나서보니 어느새 그 애들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멀찌감치 떨어져 그 애들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애들은 산동네 골목길을 골목골목 돌아 낡은 슬레이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는 작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몇 년 전에 고생 고생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왜 그 애들이 우리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클 나이에 배가 고프다 보니 찐빵이 먹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고 누나는 그런 동생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본 그 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자는 것과, 다음에 그 애들이 오면 찐빵이라도 배불리 먹여 보내자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사무소에 들러 그 애들 딱한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더불어 큰 애 이름이 숙희란 것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애들 엄마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그 애들이 찐빵을 쌓아놓은 진열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 애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애들아…”

“예?”

“너희들 찐빵 사러왔니? 왜 빵 안 사고 그냥 가니?”

“아니요.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는데요…”

자존심 때문인지 돈이 없어 찐빵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만… 혹시 너 숙희 아니니? 너희 엄마 이름이 영숙이 아니니?”

“어. 아줌마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내 친구 영숙이 딸 숙희가 맞구나! 세상 정말 좁네.
 숙희 너는 어릴 적 모습 그대로네”
 “엄마 친구 분이랑요?”
 “응. 너희 엄마랑 둘도 없는 친구란다.
 너 아주 꼬맹일 때 보고 그동안 사정이 있어
 연락이 안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그래. 엄마는 어디 계시니?”
 ””



큰 애는 엄마의 안부를 묻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몇 년 전에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란 단어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듯한 목소리로 작은 애가 대답을 하더군요.
 “뭐라고? 아니 어떡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리둥절하며 미적거리는 애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우리 힘들 때 많이 도움 받았던 내 친구. 애들이 영숙이 애들이래...”
 “정말? 당신이 그렇게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더니~ 어떻게 만났어?
 세상 정말 좁네!”
 “뭐 하고 있어요. 일단 찐빵 따끈하게 데워서 한 접시 빨리 줘요.”
 “응. 그래 알았어.”

남편이 준비해준 찐빵과 어묵, 튀김 등을 주며 그동안의 사연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부보조금과 주위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밝고 씩씩하게 자라
 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참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 애들
 모습이 코끝이 시려 왔습니다.

“숙희야. 이제는 이 아줌마가 너희 엄마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앞으
 로 힘든 일 있으면 이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모라고 불러...”
 “그리고 내일부터 동생이랑 매일 여기 들려서 밥 먹고가. 너희 엄마한테 도움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야 나도 너희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들렀다 가야한다. 알았지?”

그날 이후 그 애들은 매일 가게에 들렀다 갑니다. 밥도 먹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나를 스스럼없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예전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친 조카 이상으로 그 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애들에게 주는 작은 도움
 보다 그 애들로부터 내가 더 큰 도움과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제천 화재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졌다. 제천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이 화재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부상자를 낳았다. 화재는 1층에서 시작해 8층까지 번진 걸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건물주와 직원 7명이 있었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자 일부 몇몇은 사람들을 도와 대피할 수 있게 했지만 여성 사우나에 알리지 않고 대피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알몸으로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 밖에서 소리를 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곳은 화재 현장과 가까워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29명의 사상자 중에 20명이 여성 사우나에서 발생 했다.

화재 현장이었던 피트니스 센터는 올 10월에 오픈 영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 또한 신규 직원이 대부분 이었고 건물 구조 또한 숙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있으며 또 사건 사고에 얼마나 안일 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고 있다. 평소에 안전관련 수칙과 대피 요령 등을 미리 익히고 있었다면 이번처럼 많은 사상자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평소 안전수칙 등을 잘 익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상 내 앞에 일이 생겼을 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준비하고 조심해야 한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앞에서도 평소 우리의 믿음을 반석위에 굳게 세워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지시고 살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용어 Briefing

1. **더블딤** : 경기침체 이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 최근 원화의 급속한 강세 속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한국 경제의 더블딤 우려와 경고가 커지고 있다.

2. **스튜어드십 코드** : 큰 저택의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

운용자산 규모가 600조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 **스팸 봇** : 자동으로 댓글, 게시물 등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스팸봇으로 여론 조작이 쉽고 광범위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 1-2분 정도의 시간에 구글, 페이스북 등 계정 수십만 개를 만드는 등 다량 계정으로 가짜 뉴스나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옹호 등을 담은 글을 대량 살포한다.

트위터 속 트럼프의 지지글 3분의 1이 스팸 봇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자 이름은 다르지만 단어만 바꾸고 문장 구조는 비슷하다.

4. **신속처리안건 제도**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 사회적참사법, 신속처리안건 1호

5. **컴플리시트 (complicit)** : 어떤 일, 사건에 연루된 이란 뜻의 영어단어. 보통 좋지 않은 일 또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연루됐을 때 사용한다. 미국 온라인 사전 사이트 디క్ష너리닷컴이 2017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 대통령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풍자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 가상화폐란 무엇인가요?

가상 화폐는 블록체인 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자 데이터의 화폐입니다. 전자 데이터이므로 실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평가가 없었으나, 2017년 5월에 가상화폐법이 성립한 법률상의 위치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급속하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지만, 2017년 11월까지 1년 동안 가치가 10배 이상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기타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20배 이상 크게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과거 IT혁명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지금의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존재를 낳았습니다. 가상화폐가 인터넷 기술 금융 부문이라는 큰 문을 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앞으로 본격적인 보급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가상화폐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2) 가상화폐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에 눈길이 가기 쉽상이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은행 등의 금융 레거시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금융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저가." 금융 인프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경제활동의 금융 관련 거래 비용을 격감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의한 금융 서비스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상화폐는 어떤 기술인가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제 등 중개 기관이 불필요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결제 및 송금, 환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이 모여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개인이 모여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고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4)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비슷한 이미지로는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증권을 제외한 증권회사는 시내에 지점을 가지고 영업사원과 이야기 하면서 대면 구입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아직 대형 증권사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형태가 표준입니다. 인터넷 증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분은 비슷한 이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청의 HP에 등록되어있는 것을 선택해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이별 이칭 알아보기

1세 (막 태어났을 때를 의미)

농경(弄瓔): 요즘 남자 아이들은 자동차 놀잇감을 가지고 놀지만,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주로 구슬을 놀잇감으로 주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구슬을 선물로 주면서 축하했던 것에서 농경지경(弄瓔之慶)이 유래되었습니다.

농와(弄瓦): 딸에게는 실패(瓦)를 놀잇감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딸을 낳은 경사를 농와지경(弄瓦之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잇감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성역할을 구분했던 과거의 의식도 살짝 엿보이네요.

2~3세 제해(提孩): 제(提)는 손으로 안는다는 뜻이며, 해(孩)는 어린아이란 뜻으로 아기가 처음 웃을 무렵(2~3세)을 뜻합니다. 해아(孩兒)라고 쓰기도 합니다.

10세 충년(冲年):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15세 지학(志學):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뒀다는 데에서 유래. 학문에 전념할 나이를 말합니다.

16세 과년(瓜年): 과(瓜)를 파자(破字: 글자를 깨트린다. 흠트린다)하면 ‘八八(8+8)’이므로 여자나이 16세를 나타냅니다.

특히 16세를 강조한 것은 옛날에는 이때가 결혼 적령기였기 때문입니다.

20세 약관(弱冠): 20세 전후한 남자. 남자는 스무 살에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방년(芳年): 20세를 전후한 여자. 꽃다운(芳) 나이. 옛날에는 원복식(어른이 되어 갓을 쓰는 의식)을 했는데 예기(禮記) 곡례편(曲禮編)에 “二十日弱 하니 冠이라”하여 “20세는 약(弱)이라 해서 갓을 쓴다.”는 데서 유래 되었으며, 갓을 쓰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30세 이립(而立): 공자가 30세에 자립했다는 삼십이립(三十而立)에서 유래되어 가정과 사회에 기반을 닦고 일어서는 나이를 말합니다.

40세 불혹(不惑): 공자가 40세에 ‘모든 것에 미혹(惑)되지 않았다(不)’는 데에서 유래되어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를 말합니다.

50세 지천명(知天命): 공자가 50세에 천명(天命:인생의 의미)을 알았다는 데에서 유래되어 타고난 운명을 아는 나이를 말합니다.

60세 이순(耳順): 공자가 60세가 되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순화시켜 받아들였다는 데서 유래되어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무슨 일이든 들으면 곧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61세 회갑(回甲), 환갑(還甲) :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회갑(華甲): 화(華)자를 파자하면 십(十)자 6개와 ‘一’자가 되어 61세를 의미합니다.

62세 진갑(進甲): 환갑에서 한 해 더 나아간 해의 생일을 의미하며, 새로운 갑자(甲子)로 나아간다(進)는 의미가 있습니다.

70세 종심(從心): 공자가 70세에 뜻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 (七十從心所欲不踰矩)의 줄임말입니다.

고희(古稀):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의 구절. “인생칠십고래희 (人生七十古來稀)” 사람이 태어나 70세가 되기는 예로부터(古) 드물었다(稀)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77세 희수(喜壽): 오래 살아 기쁘다는 뜻으로 일종의 파자로 희(喜)자를 초서(草書)로 쓸 때 ‘七十七’처럼 쓰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80세 산수(傘壽), 팔순(八旬): 산(傘)자의 약자(略字)가 팔(八)을 위에 쓰고 십(十)을 밑에 쓰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81세 반수(半壽): 반(半)자를 파자하면 ‘八十一’ 81세입니다. 망구(望九): 90세를 바라본다는 의미. 81세에서 90세까지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88세 미수(米壽): 미(米)자를 파자하면 ‘八十八’인데서 유래. 혹은 농부가 모를 심어 추수를 할 때까지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서 쌀 미(米)로 여든 여덟 살을 뜻합니다.

90세 졸수(卒壽): 졸(卒)의 속자(俗字)가 아홉 구(九)자 밑에 열 십(十)자이므로 90세를 뜻합니다.

동리(凍梨): 언(凍)배(梨)라는 뜻. 90세가 되면 얼굴에 반점이 생겨 언 배 껍질과 같다는 뜻입니다.

91세 망백(望百): 91세가 되면 100세까지 살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99세 백수(白壽): 백(百)에서 일(一)을 빼면 백(白)자가 된다하여 99세를 나타냅니다.

100세 상수(上壽): 사람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입니다.

111세 황수(皇壽): 황제의 수명 또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120세 천수(天壽) : 하늘의 수명, 또는 타고난 수명을 뜻합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특별새벽기도회 / 1월 2일~5일
2. 신년축복예배 / 1월 7일
3. 제직임명식 / 1월 7일
4. 공동의회 / 1월 7일
5. 제직헌신예배 / 1월 7일 오후7:30
6. 구역장단합대회 / 1월 16일 오후7:00
7. 축구부 동계훈련 / 1월 18일~20일
8. 헌아식 / 1월 21일
9. 구역장헌신예배 / 1월 21일 오후7:30
10. 학청동계수련회 / 1월 25일~27일

◎ 공지사항

1. 1월 생활실천표어 :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라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 전역 / 김병관청년 - 1월 15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